



2026. 6. 1 (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주식 사려 돈 빌린다”...신용대출 한 달 새 2.6조 증가

서울경제

<https://zrr.kr/7PpTkE>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6조 9909억 원으로, 4월 말 104조 3413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안 돼 2조 6496억 원 불어난 규모
전월 대비 신용대출 증가액은 2021년 4월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증시 활황으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

GDP 대비 가계부채 80%, 반도체 호황에 이르면 연내 달성

서울경제

<https://zrr.kr/TIEW2B>

반도체 경기 호황에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10%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가 연내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물가 급등으로 분모(명목 GDP)가 늘어난 결과인 만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 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주담대 상단 8% 가나... 가계·자영업자 충격 불가피

국민일보

<https://zrr.kr/p4ZMpH>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자 시장금리가 곧바로 반응... 주담대 준거금리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올해 최고치인 연 4.280%를 기록
이르면 7월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주담대대출 금리 상단이 8%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모습

대출 못 벌자 펀드·카드로...불붙은 인뱅 비이자의 경쟁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Gj1ZfO>

가계대출 규제와 조달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수료 수익 확대에 속도
카뱅은 펀드 판매 등으로, 케이뱅크는 카드·제휴 서비스 중심 비이자의 기반 확대, 하반기 토스뱅크까지 펀드 판매 시장에 뛰어들면 인뱅 간 비대면 자산관리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

ETF 시장 휩쓴 ‘삼전·하닉’ 레버리지...사흘간 28조 거래

서울경제

<https://zrr.kr/ynb8wD>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상장 사흘 만에 28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린 모습
개인은 사흘 동안 해당 ETF를 9조2146억 원어치 매수한 반면 5조1541억 원어치를 매도하며 레버리지 ETF 매매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성향 포착

RIA 막차 탄 서학개미...美 주식 팔고도 시株는 담았다

이데일리

<https://zrr.kr/3FkGLu>

올해 1분기 미국 주식을 끌어 담던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 1조원 넘게 미국 주식을 던지며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
해외 주식 투자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RIA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이달 말 종료되면서 차익 실현과 국내 복귀 수요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

‘돌려막기’ 사라졌다...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 ‘뚝’

디지털타임스

<https://zrr.kr/jBUT56>

보험사의 자본성증권(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542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7250억원) 대비 88.5% 감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기본자본 키스 비율 규제를 도입하면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 자본성증권의 발행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

“40조 풀라는데 키스가 발목”...보험사 생산적 금융 ‘양극화’ 예고

브릿지경제

<https://zrr.kr/s8JM8s>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금융에 4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강화된 자본규제(K-ICS)가 걸림돌로 부상
미래 성장산업 투자는 장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반면, 현 제도하에서는 투자액만큼 보험사가 살아야 할 유보금(요구자본)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

월러 연준이사 "스테이블코인, 美 통화정책 영향력 확대할 것"

연합뉴스

<https://zrr.kr/5tG0QD>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확산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영향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연준 인사 진단이 나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일수록 미국의 자금조달 비용을 수입하게 되는 것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설명

두나무 이어 코인원까지...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확보전 ‘활활’

디지털투데이

<https://zrr.kr/KeuTGO>

코인원은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 컴투스홀딩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
투자 이후 코인원 지분 구조는 차명훈 대표 30.36%, 컴투스홀딩스 24.54%, 한국투자증권 20%, OKX벤처스 20% 등으로 재편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